

Atlanta 2026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화 동창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EWHA GROW GLOW ATLANTA



OCTOBER 29 - NOVEMBER 1, 2026
THE WESTIN ATLANTA PERIMETER NORTH

초대합니다

숲의 도시, 애틀랜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던 우리,
이제 다시 하나 되어 만납니다.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서로의 나눔은 또 다른 140년을 향한 영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애틀랜타에서 한, 발, 더, 돕음하는 우리.
그 만남에 이화의 빛은 더욱 넓고, 높습니다.

EWHA, GROW, GLOW ATLANTA 2026!

애틀랜타 지회 일동

이화사랑 후원을 감사드립니다.

진		선		미	
구정원(81체육)	이명애(76의학)	강성희(68도서)	이미정(85교심)	강혜정(85역교)	안광혜(64생물)
김경원(81가관)	이병숙(69영문)	김원숙(68생미)	이원옥(69수학)	김인정(67영문)	어영희(65사학)
김금숙(70간호)	이복희(75섬예)	김은숙(68사회)	이인순(69약학)	구자은(85영교)	이화강(67교육)
김민영(78무용)	이영애(65의학)	김정숙(65사학)	이혜선(64피아노)	권일선(75작곡)	유명자(71식영)
김아자(63의학)	이정은(60가정)	김정자(66신방)	장공근(67기악)	김명은(65조소)	윤선자(67간호)
김영례(79교심)	이종연(68약학)	김정희(79약학)	정계숙(86식영)	김이선(86가관)	이경희(87무용)
김혜경(65영문)	임철자(63생물)	박애경(72수학)	정소영(62영문)	김자영(86제약)	이종란(60생물)
박기만(72음대)	장명옥(81영문)	박윤미(76국사)	조미영(79건교)	남경숙(68영문)	전정애(59영문)
박영애(70서양화)	정정남(61불문)	백말순(67수학)	조성숙(64가정)	박성은(92동양화)	정연수(69입학/도서)
박영혜(68의학)	정제니(64영문)	변명섭(68가정)	조수현(76수학)	박인숙(86교육)	하승연(87사회)
박유순(65간호)	조후자(70의학)	서석영(94정의)	최복희(73성악)	손민정(69섬예)	
배유경(88교공)	주성자(89독문)		무명 1	손진옥(68가정)	
배진희(78경영)	차희숙(77체육)				
손정화(03교공)	최인숙(64사생)				
오은경(54심리)	홍정자(66의학)				

목 차

초대의 글

차희숙 /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4
이지은 /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축하의 글

이향숙 /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5
이명경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6
Bishop Mary Swenson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이사장	

이화소식

2025 워싱턴 DC 총회를 마치고	8
지회소식	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공문	19
2026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 연도별 총회 개최 지회	20
동창회 장학금 / 기금 소식	21
2026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일정 / 관광 안내	22
EWHA, GROW, GLOW ATLANTA 2026! 참가 신청서	23

광고	24
----	----

2026 북미주 지회연합회 고문
김정희(79 약학), 김명옥(75 경영), 제갈숙경(79 관현악)

2026 북미주 지회연합회 임원
회장 차희숙(77 체육)
부회장 류은주(92 약학) 준비위원장 김영례(79 교심)
제1서기 이미정(85 교심) 제2서기 조혜라(96 영문)
회계 구자은(85 영교) 홍보 서석영(94 정외)

2026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보팀
발행인 차희숙(77 체육)
편집인 김영례(79 교심), 이미정(85 교심), 김이선(86 가관)
좌승희(88 영문), 최자영(92 작곡), 장명옥(81 영문)
디자인 황수영(94 도서/97 장미), 김소연(96 장미)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차희숙 (77 세육)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1886년 창립 이후, 이화여자대학교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여성 교육의 사명을 굳건히 지켜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재들을 길러 왔습니다.

특히 창립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이화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며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는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어우러진 도시로, 이화가 추구해 온 '성장(Grow)'과 '빛남(Glow)'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이번 모임이 동창 여러분 각자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영감과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시어, 창립 140주년을 맞이한 이화의 이름으로 다시 만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빛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애틀랜타 모임이 이화 동창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성장과 나눔, 그리고 빛나는 추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미주 이화 동창 여러분들을 애틀랜타에서 "Ewha, Grow, Glow Atlanta 2026!"의 마음으로 정성과 기쁨을 담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께,



이지은 (96 불문)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지난 2025년 10월 워싱턴 DC에서 펼쳐졌던 총회의 감동을 뒤로 하고, 이제 2026년 애틀랜타 동창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뵈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는 그동안 이화인으로서의 긍지를 확인하고 함께 화합하며 북미주 지회 동창분들과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행사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미국 남부의 대표적 대도시인 애틀랜타에서 "Ewha, Grow, Glow Atlanta 2026!"이라는 주제아래, 동창님들을 반갑게 만나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가 가득하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애틀랜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애틀랜타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이화인 각자의 삶과 여정,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빛나고자 하는 우리의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 기간 동안에는 공식 회의뿐만 아니라 동창님들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교류의 시간, 의미 있는 강연과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과의 재회는 물론, 새로운 인연을 맺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북미주 각 지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동창님들과 함께 앞으로 북미주 지회연합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도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화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함께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애틀랜타에서의 이번 만남이 동창님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오랫동안 힘이 되는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께,



이향숙 (86 수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제18대 총장 이향숙입니다.

먼 타국에서도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모교를 응원해 주시는 북미주 동창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이화가 창립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일구어낸 이화의 역사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Ewha, Grow, Glow Atlanta 2026!” 처럼 이화와 함께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며, 이화를 글로벌 명문 사학으로서 창조적이고 포용적인 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가치를 창출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년간 우리 이화는 쉼 없이 달려며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우선 ‘AI for All Ewha’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이 AI의 기초역량을 갖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캠퍼스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해 이화의 캠퍼스를 창의적 교육과 깊이 있는 연구, 그리고 혁신적 창업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허브로 도약시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관은 교육과 융복합 연구, 창업 기능을 집약한 ‘이화 웨스트 캠퍼스’로, 헬렌관은 학생들의 비전과 가능성을 담아 낼 ‘이화첨단학술정보관’으로 새롭게 변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의 노력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선정으로 향후 10

년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하였으며, 250억 원 규모의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과 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수주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화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6위, QS 세계대학평가 4개 학문 분야 세계 100위권 진입이라는 지표를 통해 우리 이화의 경쟁력과 학문적 탁월성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과 국가고객만족도(NCSI) 사립대 4위를 기록하는 등 연구와 대외평 판도, 교육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가 지난 140년간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한국 여성 교육의 선구자로서 그 위상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해외 곳곳에서 이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모교를 지켜주신 동창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쌓아 올린 성취와 자부심은 우리 이화가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이제 이화는 창립 140주년의 긍지를 바탕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화가 세계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그 성과로 세상을 밝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북미주 동창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든든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도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모든 동창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북미주 지회연합회 애틀랜타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축복하며



이명경 (77 무용)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후배 이화 동창들께 문
안합니다.
모교가 창립 140주년을 맞이하고 총동창회는 창립
118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에, 북미주 지회연합회
애틀랜타 총회를 앞두고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
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지난해 워싱턴 DC 총
회에서 나누었던 선후배 동창들과의 따뜻한 만남을 기
억하며 '이화가 있기에 우리가 있음' 에 새삼 감동합니
다.
그러면서 문득, 140년 전 스크랜튼 선교사를 통하여
모교 '이화' 를 시작하시고 그 날개 밑에서 한국 여성들
을 보호하고 성장시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지없는 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모교 '이화' 는 이제 다양
한 변화 속에서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선
도'하는 비전을 힘써 구현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 또
한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간담회' 및 '합창 페스티벌' 과
'동창의 날' 행사를 비롯한 연간사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화' 의 걸음에 발맞추어 하나님이 비추고 가리키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북미주 지회
연합회 선후배 동창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및 후원
을 부탁드립니다.
북미주 각처에서 'Ewha, Grow, Glow Atlanta 2026!'
을 품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멀고 먼 여정 마다하지
않고 동서남북에서 기쁨으로 모이실 선후배 동창들을
생각하니 왠지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역동적인 동창 축제의 현장을 마련하느라 다함없는 헌
신과 열정으로 애쓰고 계실 차희숙 회장님과 임원들에
게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다시금 북미주 지회연합회 애
틀랜타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
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Bishop
Mary Ann Swenson
President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en's
University

Warm greetings to the Ewha community across North America,

It is a privilege to greet you through this newsletter and to reflect together on the shared spirit that unites us as daughters, families and friends of Ewha. This year's theme, "Ewha, Grow, Glow Atlanta 2026!" speaks beautifully to who we are and who we are becoming - rooted in faith and purpose, growing through connection and commitment, and glowing as a community that brings light and hope to the world.

Across cities, generations, and chapters, Ewha alumnae continue to embody lives of service, leadership, and compassion. Through your fellowship, generosity, and faithful support, Ewha's mission is not only sustained but strengthened for the generations to come.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en's University remains deeply thankful for your unwavering support of Ewha - support that strengthens our students, empowers our faculty, and advances Ewha's mission to educate women who will serve the world with wisdom, compassion, and leadership. Your dedication makes a lasting difference, far beyond what can be measured.

As we journey through this year together, may Ewha continue to grow in vision and purpose through you, and may your lives continue to glow with the enduring spirit of Ewha. I look forward to the time when many of us will gather again and share in fellowship face to face in Atlanta.

With gratitude and warmest wishes,

Mary A. Swenson

Mary Ann Swenson, President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en's University

이화 창립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 기획·추진 및 발전후원회 발족식 개최



본교는 2026년 창립 140주년을 맞아 미래 비전과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창립 14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 ▲기념행사 ▲홍보 ▲모금·건축 ▲기록·편찬 ▲공연 ▲전시 등 총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5월 한 달 동안 학술행사, 전시회, 공연 등 이화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140주년의 의미를 나누는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립 140주년 공식 엠블럼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화의 발자취와 미래 비전을 알리는 기념 웹사이트(<https://140.ewha.ac.kr>)를 오픈하는 등 140주년의 가치를 대내외에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1,400억 원 목표로 모금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본교는 1월 15일(목)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발전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새 시대, 새 이화'를 향한 힘찬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이향숙 총장은 창립 140주년 비전 소개를 통해, 지난 140년간 기부자들의 사랑과 헌신이 오늘의 이화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화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 인프라와 재정 전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여러분은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이화의 다음 시대를 함께 설계해 나갈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화가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문과 사회 각계의 지혜와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전후원회가 이화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미 창립 140주년의 의미에 공감한 동문과 기업, 후원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부터 현재까지 650여억 원의 기부금을 확보하였다. 이를 계기로 향후 이화의 미래 비전에 공감하는 후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 국가연구소 사업(NRL 2.0) 선정



본교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 (Institute for Multiscale Matter and Systems)' (이하 IMMS, 소장 문회리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가 지원하는 '2025년 국가연구소(이하 'NRL 2.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본교가 구축해 온 세계적 수준의 연구 생태계와 융·복합 연구역량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입증되고, 향후 10년간 국가 전략기술과 미래의 난제를 해결할 연구거점으로서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NRL 2.0 사업은 기술·산업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문제해결형 융합 연구소 육성을 목표로 2025년 처음 도입된 국가 과학기술 전략 사업이다. 지난 4월 공모와 평가를 거쳐 본교 IMMS를 포함한 4개 연구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IMMS는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총 1,000억 원을 블록펀딩(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원받아 멀티스케일 물질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 전략기술과 인류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융합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NRL 2.0 선정은 본교 미래 연구전략의 성과로, 향후 IMMS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을 확장하고, AI 기반 정밀 소재 설계, 기후·에너지, 첨단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난제 해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6위 도약



본교가 11월 25일(화) 발표된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 순위 6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대학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신뢰받는 교육과정과 취업 성과, 꾸준한 연구 지원이 빛을 발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학문분야 평가에서도 인문·사회·경영·이공계를 아우르는 성과를 보였다. 언어·문학·인문학 분야는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전임교원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혁신 노력이 인정받았다.

경영·경제 분야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높은 취업률과 낮은 중도 포기율은 학생들의 학업 충실도와 진로 경쟁력을 보여주며, 상위 10% 우수논문 비율을 통해 연구 수준도 입증됐다. 사회과학 분야는 교수당 국내논문 피인용(FWCI) 등에서 강점을 보이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공계에서는 전기·전자·통신·컴퓨터, 수학·물리·천문·지구, 화학·생명·농림·수산 분야가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본교가 인문·사회와 경영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공계 지표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준다. 창립 140주년을 앞둔 우리 대학은 글로벌 평판도 상승 전략을 추진하며 다음 단계 도약을 준비할 계획이다.



2025년 워싱턴 DC 총회를 마치고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 DC 지회 주최로 열린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는 많은 동창님들을 모시고 이화의 화합과 감동이 어우러진 뜻깊은 자리로 아름답게 진행되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총회를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해 오며 최미나(90 관현악) 준비위원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과 마음을 모아 하나하나 결정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동창들과의 끈끈한 우정과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이지은 (96 불문)

호텔 내에서는 퍼스널 컬러 컨설팅과 필라테스·요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고, 워싱턴 DC의 박물관과 대한제국공사관 방문 등 짧은 일정 속에서도 동창님들께 소중한 추억을 안겨드리고자 많은 고민과 정성이 담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음악대학 100주년 기념 공연은 깊은 감동을 전했으며, 마지막 무대인 '이화 판타지'에서는 동창, 학생, 교수, 직원이 한 무대에 올라 이화의 정신이 하나로 빛나는 장엄한 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가의 마지막 구절인 '성인(고종)이 이름하여 이화라 하셨다'가 울려 퍼질 때, 고종의 손녀이신 이혜경 선배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이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북미주 각 지회 동창님들께서 보여주신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헌신과 연대가 북미주 지회연합회를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모든 동창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워싱턴 DC에서 확인했던 이화인의 저력과 따뜻한 연대를 애틀랜타에서도 다시 한번 꽃피워, 성장(Grow)과 빛남(Glow)이 공존하는 이화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ATLANTA 지회장 차희숙 (77 체육)

애틀랜타 지회는 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1시 Bears Best Country Club에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모임을 개최하였다. 차희숙(77 체육) 차기 회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김아자(63 의학) 고문의 송년 기도와 이인순(69 약학) 단장의 지휘 아래 교가를 제창하며 뜻깊은 시간을 열었다. 특히 오은경(54 심리) 동창의 건배 제의로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모임을 이어갔다.

만찬 후에는 여주은(92 독문)의 사회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첼로 구건희(16 관현악)와 피아노 김태원(86 피아노)의 앙상블로 'Amazing Grace'를 감동 깊게 감상하였고, 이어진 합창 공연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워싱턴 DC 총회에서 선보였던 탤런트쇼 팀 윤혜경(76 기독교)과 팀원들의 공연이 더해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게임과 복권 추첨으로 푸짐한 상품을 나누며 즐거움을 더했고, 마지막에는 이경희(87 무용)의 지도 아래 모두 함께 라인댄스를 추며 유쾌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이날 모임은 다가오는 총회를 앞두고 동창 간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Ewha, Grow, Glow Atlanta 2026!" 슬로건을 함께 외치며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 이어 2026년 1월 11일에는 청담에서 신년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50여 명의 선후배가 참석한 가운데 떡국을 나누며 새해 인사를 전하고 2026년 한 해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였다. 또한 차희숙(77 체육) 회장과 임원



진의 연임 인준과 함께 10월 총회 준비 계획을 공유하고, 한인회 패밀리센터에 지역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창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송년 모임과 신년 정기총회를 통해 애틀랜타 지회는 2025년을 뜻깊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 BALTIMORE 지회장 금영진 (80 의류직물)



워싱턴 DC 총동창회 만찬 8명참석



워싱턴 DC 음악회 (케네디 센터)

볼티모어 지회는 지난 하반기에도 이화의 정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먼저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미주 총동창회에 8명의 지회 동창이 참석하여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함께 확인하였다. 이어 11월에 열린 추계모임은 홍경주(58 약학) 선배님의 따뜻한 식사 대접과 권혜원 동창(87 화학)의 활기찬 게임 인도, 박은선(78 법학), 이선희(73 체육) 동창의 회계 및 사진 봉사, 지명희(67 약학) 동창의 총회 후기 발표, 그리고 이민희(63 사법) 동창의 세심한 섬김이 어우러져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유익했다.

나눔의 실천도 이어졌다. 지회는 2025년에 이화국제재단에 \$1,000의 장학금을 추가로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이 \$2,500로 증액되었다. 장학금을 받은 후배로부터 "꿈을 포기하지 않고 훗날 후배를 돕는 교사가 되겠다"는 감동적인 편지가 도착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또한 매달 '수다방'을 통해 함께 식사하며 정기적인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6년 6월 10일(수) 오전 11시 30분에는 춘계 모임을 겸해 80세 이상 동창들을 축하하는 '80+ Celebration'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팔봉문학상을 수상한 손형란 동창(화학 69)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볼티모어 지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통하며 앞서가는 이화 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지회 소식

■ BOSTON 지회장 권선인 (89 수학)

2025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보스턴 지회는 EWHA BOSTON in STEM 커리어 개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경력 개발을 모색하는 동창들이 교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보스턴을 비롯한 미국 각 지역과 한국에서 약 50여 명의 동창이 참여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EWHA BOSTON MentorLink로 확장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이화인들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통합 멘토링 네트워크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

수 학생 5명에게 총 5,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이는 보스턴 이화 동창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국제재단을 통해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외 선교 활동을 이어갔다. 6월에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을 방문해 동창이 준비한 전문 해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였으며, 9월 애플 피킹과 12월 연말 파티를 통해 동창 간의 친목을 다지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 S. CALIFORNIA 지회장 김성은 (88 과학교육)

1. 2025년 송년 파티

향상 12월 첫째 일요일로 정해진 남가주 지회의 송년파티는 늘 웃음꽃이 만발하는 정겹고 화려한 파티가 진행된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단체별 장기자랑과 신나는 게임과 풍성한 경품 선물까지, 59년 졸업하신 선배님부터 2010년졸업의 막내후배까지 하나되어 즐겼던 시간으로 서로서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만남의 장으로 거듭났다.

2. 이향숙 총장님 오찬회

2026년 1월 10일 새해의 힘찬 기운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제18대 이향숙 총장님을 모시고 남가주 동창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오찬회를 가졌다. 이번 오찬회에서는 총장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이화의 현재 성과와 미래 비전, 그리고 동창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해 주신 의미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교와 동창이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동창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으로 국제재단을 통한 기부까지 뜻을 모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감사한 만남이 되었다.



■ N. CALIFORNIA 지회장 박명정 (80 자수)

북가주 지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지회를 섬길 새 임원단을 구성했다. 회장에 선출된 박명정 동창(80 자수)을 비롯, 총 열 명의 임원단은 모두 80년대와 90년대 졸업생으로 유연하고 참신한 사고로 지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지회를 이끌어온 이영완 회장은 고문으로 지회의 연속성과 단합을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한편, 1월 11일에는 북가주를 방문한 이향숙 총장님 및 모교 방문단과 함께 새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인근 레스토랑에서 환영 오찬을 가졌다. 동창들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모교의 현황과 '140주년 비전'을 듣고, 졸업 60년 차 대선배부터 졸업한 지 10년이 안 된 젊은 동창까지 타국에서의 삶과 성취를 나누었다. 특히 수십 년간 모교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온 한 동창은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기쁨이자 보람"이라고 회고하여 큰 울림을 주었다. 지회는 모교를 위해 모금한 미화 \$5,000의 기부금을 방문팀에 전달했다. 총장님은 "동창들의 후원이 학교에 커다란 버팀목임을 실감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지회 내 젊은 동창들의 모임인 '차세대 모임' 멤버들이 총장단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새겼다. 세대 간의 조화로 더욱 활기찬 북가주 지회의 모습이 기대된다.



■ CLEVELAND 지회장 김예경 (96 사회생활)

본지회에서 매월 진행되는 이화만남은, 겨울 한파로 인해 2026년은 1월이 아닌 2월에 시작됐다. 비록 단란한 규모임에도 올해에도 다섯 이사분들의 지원으로 희망찬 2026년의 문을 활짝 열었다. 특히 새롭게 합류한 젊은 동창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오랜 시간 지회를 이끈 노련한 선배님들의 지혜로 만들어질 올 한 해를 기대해본다.

클리블랜드 지회는 계속하여 이화 국제재단을 통한 장학금 전달과 클리블랜드 지역의 여성 단체 두 곳을 후원하며 이화의 나눔 정신을 매년 변함없이 실천해 왔다. 특별히 작년 8월에는, 이화학당을 설립한 메리 F. 스크랜튼 여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동창들과 함께 참가하고 감사의 의미로 특별 후원금을 마련하여 뜻 깊은 기억을 남겼다. 감리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여성 교육뿐 아니라 의료 활동에 헌신한 스크랜튼 가족의 이야기를 정희수 감독으로부터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클리블랜드는 이화의 뿌리가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였다. 메리 F. 스크랜튼 선교사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인 1882년부터 1884년까지 약 2년 동안 이곳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과 함께 거주하며 다운타운의 First Methodist Episcopal Church 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다. 아들 윌리엄이 의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그녀 역시 그 사역의 연장선 위에서 52세의 나이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세웠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바로 이화의 모태가 된 곳을 새롭게 확인하며, 기념행사에 참여한 동창 모두는 송고한 유산에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다.



앞으로도 우리지회는 스크랜튼 부인의 섬김과 사랑을 이어받아, 세대를 아우르며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단단한 여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지회 소식

■ DENVER 지회장 김진희 (06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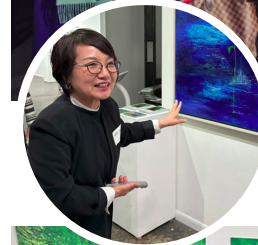
지난 1월 24일 토요일 정오, 서울 바베큐 식당에서 개최된 덴버 동창회 신년회에는 최만자, 김정자, 이미옥, 임은혁, 김덕순, 백홍자, 이후원, 이해경, 김선희, 강윤희, 김진희, 오수정의 총 12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2025년 동창회 회계 보고와 함께, 메릴랜드로 이사한 장문선 회장에 이어 김진희(06 건축) 동창이 신임 동창 회장을 맡기로 하였으며, 강윤희 회계는 연임되었다. 지난 2년간 동창회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온 이후원 총무에게 큰 감사를 표했다. 이후원 총무는 임원직을 내려 놓지만, 꾸준히 동창회를 지원하고, 덴버 동창회를 대표하여 전미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의 후원이 사로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모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콜로라도로 이주한 김덕순(76 식영) 동창이 새롭게 참석해 큰 환영을 받았고, 이화여자대학교 본교에서 선물한 2026년 탁상 달력과 이화수첩이 증정되었다.

올해 덴버 동창회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볼더 등지에서 모임을 개최해 더 많은 동창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콜로라도에 거주하지만 동창회에 참여해 보지 못한 동창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자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 주변에 계신 동창들과 함께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 2월 13일에는 백홍자(80 조소) 동창의 미술 전시회를 덴버에 위치한 닷 갤러리에서 동창들과 가족, 많은 콜로라도 지인들과 함께 방문하여 작품에 담긴 배경 이야기를 듣는 '작가와 대화' 시간을 가졌다. 덴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화여대의 명성을 빛내고 있는 동창 미술가를 가까이서 응원할 수 있어 더욱 자랑스럽고 특별한 자리였다.



■ DETROIT 지회장 박은하 (92 교육공학)

2025년 3월 29일, Michigan State University 박사과정 중인 안성연 동창의 피아노 독주회를 함께 감상하고, 연주 후에는 동창의 수고와 노력을 격려하며 선후배 간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2025년 5월 17일, 흥화 레스토랑에서 봄 동창회가 열렸다. 특히 올해는 미시간 동창회 60주년으로, 1부에서는 졸업 50주년 동창 축하, 정기 회계 보고,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디트로이트 장학금은 지역사회 1명, 동창자녀 1명, 동창유학생 2명, 총 4명에게 전달되었으며, 축하와 격려의 박수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식사 후 이어진 2부에서 Michigan School of Psychology 임상심리학 박사과정 이성원(03 영문) 동창의 '삶을 품고, 꿈을 이어가다 동아시아계 유학생 아내들의 진로 개발 여정' 발표는 진솔한 연구 이야기와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냈다.

2025년 8월 9일, 오주리(78 섬예) 선배님의 자택에서 Cowboy & Cowgirl 콘셉트의 특별한 모임을 가졌다. 맛있는 음식과 신나는 게임, 총회 장기 자랑 리허설까지 세대와 전공을 넘어 함께한 그날의 풍경은 오래도록 기억될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2025년 11월 8일, Livonia의 Laurel Manor에서 겨울 동창회가 개최되었다. 박은하(92 교공) 회장의 개회사와 함께 워싱턴 DC 총회 보고와 지회 활동 영상 상영, 새 동창 소개 시간 등을 가졌다.

특히 양혜인(14 사생) 동창과 함께 한 퀴즈, 게임, 넉넉한 상품들이 즐거움을 더했고, 라인댄스에서 동창뿐 아니라 사윗님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였던 그 장면은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순간이 되었다.

행사는 회장의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도 함께 이화의 전통을 이어가자'는 인사와 함께, 참석자 전원에게 향긋한 이화 커피를 선물로 나누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마쳤다.



■ HOUSTON 지회장 이은경 (92 사회생활)

휴스턴 지회는 매년 5월 정기모임에서 지역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2025년에도 장학 기금마련을 위해 선후배님들이 모여 사랑과 정성으로 손만두와 빈대떡을 만들어서 판매하였고 그 수익금으로 두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두 달에 한 번씩 이화 북클럽으로 모여서 현대문학, 고전문학, 사회과학등 다양한 책을 선정해서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9월 정기모임에서는 점심을 함께 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한편 Life Tree Ministry라는 단체에서 난민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신 최성숙(65 약학) 동창님의 사역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휴스턴 동창회는 매년 바자회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며 이 난민 사역을 후원하고 있다. 10월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총회에 6명의 휴스턴 지회 동창이 참석해서 발전하는 본교의 소식을 들으며 반가운 시간을 가졌다. 12월 정기 모임에서는 이영일(72 의직) 동창 댁에서 모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22명의 동창이 참석했는데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게임, 그리고 아름다운 연주와 음악이 어우러진 즐거운 시간이었다.



■ ILLINOIS 지회장 이정화 (94 건강교육)



2025년 2월 21일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신입 이사 5명을 소개하고 연간 행사 및 사업 설명이 있었다.

4월에는 온라인으로 시카고 미술관 AIC의 한국미술을 주제로 교양강의를, 지연수(92 영문), 보건학 분야의 동창들을 모시고 커리어톡을, 박지혜(12 간호) / 김정은(01 간호), 각각 진행했으며, 5월 3일에는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탑에서 바베큐 파티를 총 40명의 동창과 가족이 봄의 시작을 함께했다.

8월에는 그랜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을 즐겼고, 9월 20일에는 Montrose 공원에서 총 38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어우러져 가을 피크닉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지회 장학금도 수여했다. 11월 9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지역단체 후원과 2026년도 사업 및 행사를 논의했고, 또한 11월 파니 멘델손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양강의(조혜진 12 피아노)로 깊이 있는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며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나눴다. 12월에는 Beatrix Fulton Market에서 11명의 동창이 모여 따뜻한 송년의 밤을 보냈다.

2026년 2월 7일에는 이지선(96 섬예) 후원이사 댁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총 17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자기소개와 전년도 회의록 승인, 업무 보고 및 사업 계획 발표가 있었다. 또한 게임과 상품 추첨을 즐기며 늦은 시간까지 정겨운 담소를 나누었다.



■ LAS VEGAS 지회장 이영인 (68 도서관)

지난 3월 모임에는 14분의 동창과 남편분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우리 모임은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정다운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모임에서는 2월과 3월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동창들의 생일을 축하했고, 선배님들이 준비해 가지고 나오신 학창시절 사진을 보며 잠시나마 이대 교정으로 되돌아 간 듯한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회 소식

■ MINNESOTA 지회장 김정은 (90 체육)

미네소타 지회는 2025년 12월 6일, 김정은(90 체육) 동창 자택에서 연말모임을 가졌다. 총 10명의 동창과 특별 게스트 1명이 참석했으며, 뜻깊게 준비한 푸짐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고 후 회의를 진행했다.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김권식 이사님은 이화 국제재단 이사이자, 2025년 2월 우리 곁을 떠나신 고 황성숙 동창의 부군이다. 김권식 이사님은 회의에서 이화 국제재단 이사회 소식, 북미주 동창회 소식, 그리고 음대 100주년 기념 공연 소식 등을 전하며 학교와 동창회의 최근 소식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동창회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동창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끝에, 2026년부터 연회비를 기존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연회비 인상 결정은 앞으로 동창회 활동과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 간의 교류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다음 모임은 잠정적으로 2026년 6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 선출도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게임을 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게임을 통해 김권식 이사님이 준비해 온 이화 기념품을 나누어 가졌고, 이어 각자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함께 나누며 웃음과 정이 가득한 시간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단체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이번 연말 모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동창 간의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동창회와 이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참석한 모든 동창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남겼다.

■ NEW YORK 지회장 류은주 (91 약학)

2025년 5월 31일, 세인트 앤드류 골프장에서 10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비큐 파티와 바자회가 개최되었다. 바자회 수익금은 70세 이상 동창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7월 '몸보신 데이' 행사에 소중히 사용되었다.

2025년 10월 18일, 맨해튼의 교회에서 'Passing the Legacy' 라는 주제 아래 연례만찬을 가졌다. 동창들의 작은 음악회가 준비되었는데 참여한 후배들에게 이보영(56 피아노), 백낙정(59 피아노) 선배님께서 기탁하신 음악대학 100주년 기념 후원금의 일부로 장학금이 전달되어 선배들의 사랑과 격려가 동창회 전체에 아름답게 흐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26년 1월 24일, 12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개최하였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에서 1950년대부터 2020년대 동창들이 참석하여 덕담을 나누고 동창회의 비전과 연례행사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즐거움 동창회'를 목표로 다양한 이화동호회를 새롭게 소개함으로써 동창간 교류 활성화와 20~30대 동창들의 커리어 멘토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창들이 '동창회가 한층 젊어지고 활성화되는 것 같아 무척 기쁘다', '같은 과 선배님들께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전했다.



PHILADELPHIA 지회장 이교연 (70 영어교육)

2025년 4월 5일 9명의 회원과 함께 처음으로 북클럽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5월 12일 5명의 이사가 모인 이사회 모임에서는 매년 추진해 오던 이웃돕기 프로그램으로 이상조 목사가 주도하는 GOAHEAD 사역에 \$1,000을 보내드렸다.

6월 7일에는 뉴저지주의 Smithville Park에서 부부 동반 9명의 회원이 야유회를 가졌으며, 8월 2일의 정기모임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김영석 교수의 St. Helena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12월 6일은 박찬수 동창택에서 송년회가 열렸다. 1부에서 26년 새 임원으로 이교연 회장의 연임, 회계에 조경숙, 총무에 변윤미 동창이 수고하게 되었다. 2부에서는 천재 피아니스트 한동일씨의 형님이신 오성실 동창 부군의 피아노 연주로 감미로운 선율을 감상하고, 이어서 김영석 교수님의 크리스마스 캐롤의 기원과 의미 강의 후 'White Christmas'를 다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불렀다. 또 제기차기, 공기놀이와 같은 추억어린 게임, 카드 게임 등을 하며 전 일정을 마쳤다.

2026년 2월 14일 첫 정기 모임에서 10명의 회원들의 사진 촬영 후에 새 임원진 소개, 25년도 회계 내역 설명, 아펜젤러, 백낙정 장학금 안내, 올해 1년 계획안 발표 등을 들었다. 이어 10월 29일~11월 1일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일정과 총회 전 2박3일 여행지에 대한 애틀랜타 지회의 소식을 전달하고, 이어서 즐거운 퀴즈 풀이와 생활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정기모임을 마쳤다.



PORTLAND 지회장 한나리 (92 체육)



포틀랜드 지회는 2026년 1월 14일 첫 신년 모임을 함께 하였다. 적은 동창의 참여였지만 오붓하게 모여 작년 워싱턴 DC 총회 소식과, 올해 140주년을 맞이할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금 안내 그리고 올해 애틀랜타 북미주 지회 총회 참여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따뜻한 떡국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서로의 근황과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고, 식사 후 소화도 도울 겸 다함께 라인 댄스도 하면서 달콤한 디저트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는 6월 장미 축제 피크닉과 9월 사과 농장 방문 그리고 12월 송년회로 만나며 돈독하고 화기애애한 동창회 그리고 모교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포틀랜드 지회가 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지회 소식

■ SEATTLE 지회장 김희정 (83 영문)

시애틀 지회는 지난해 12월 6일, 할러데이 인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부부동반을 포함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신입회원을 환영하는 순서로 시작하여 지난 1년간 동창회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정(83 영문) 회장은 올 한 해 두 번에 걸친 이화장터 행사에서 모아진 수익금 \$5,052이 장학사업을 비롯한 동창회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고, 박명호(78 정외) 동창의 재능기부로 세 차례 음악 강연을 통해 모여진 기부금 \$4,650은 Korean Emergency Fund 와 First Responders Children's Foundation에 각각 보내질 예정이라 발표했다. 또한 동창회가 20여 년간 지원해 온 University of Washington 한국학센터 장학금 수상자로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인 Marissa Hauser가 선정되어 동영상으로 수상소감을 전했으며, 동창회 소속 합창반인 이화 하모니의 축가로 송년의 분위기는 무르익어갔다. 특히 시애틀 지회가 그동안 국제재단을 통

해 적립해온 기금으로 매년 \$2,500씩 본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재경(80 과교) 이사장의 보고를 받으며 참석자들 모두 영원한 이화인으로서의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어서 동창들이 어울려 맘껏 끼를 발산하는 2부 순서가 마련되어 선후배 간 정이 듬뿍 쌓이고 유대감도 배가 되는 송년모임 그 자체였다. 한편, 지난 2월 14일에는 김희정 회장 자택에서 신년하례식이 열렸다. 36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임원진 소개, 회계 및 감사 보고, 연간계획 발표 등의 순서로 총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2026년에는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 이벤트 및 소그룹별 열린 모임을 통해 젊은 후배들이 동창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신년포부를 밝혔다. 점심식사 후 벌어진 윗놀이 판은 새해 기분을 한껏 끌어올렸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신년모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 시애틀지회 출발의 달을 힘차게 올렸다.



■ ST. LOUIS 지회장 최혜영 (86 생미)

그동안 공식적이었던 지회 이사장직을 늘 말없이 동창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어 지회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수자(63 가관) 동창이 추대되었다. 1997년 5월에 첫 모임을 가졌던 세인트루이스 지회에는 3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내 외로 이주하며 모이는 동창 인원이 줄어들고 있던 가운데, 2025년에는 새내기 동창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지회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연말 연초 심한 한파로 인해 아직 만나지 못한 동창도 있지만, 지회 단독방에서 활발히 소통하며 3월 정기모임을 기다리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지회의 또 다른 자랑은 이화 사랑, 이화 사위들이다. 처음으로 지회 모임에 나오는 새내기 동창들은 자그마한 식당임에서도 우리 모임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 남자들이 많아서 이대 모임이 아닌 줄 알았다고...

몇 해 전 소천하신 고 최경선(62 영문) 이사장님의 부군 김승희 박사님께서 늘 한결같이 지회 모임에 나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정선주(68 성악) 동창의 부군 김덕진 박사님과, 선재숙(72 의학) 동창의 부군 박종관 박사님도 늘 함께 참석해 주셔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고, 새내기 이효서(19 생명공학) 동창의 부군 이화 사위 손민수는 지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분이다.

모교 동창 선교사인 최혜영(86 생미, 89 대학원) 동창은 몇 해 전부터 모교 선배인 미술대학 영상디자인전공 최유미 교수와 함께 M어린이 전도영상 시리즈 제작을 구상해 오던 중, 2025년 북지연 총회에서 만난 애들랜타 지회 동창들의 후원을 받아 첫 번째 에피소드를 모교 영상디자인과 학생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세인트루이스 지회원들도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복음의 불모지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 N. TEXAS 지회장 이미리 (83 도서관)

2025년 12월 6일 저녁 5시 30분에 이화여자대학교 북텍사스 지회 송년 디너 파티와 작은 음악회가 식당 '수라' 대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이화 동창 음악팀의 자선 음악회인데, 올해는 좀 더 이화 가족들과 내빈을 위한 작고 친숙한 음악회를 준비했다. 바흐와 헨델, 푸치니, 차이코프스키, 가르델 등의 우리 귀에 익숙한 대가들의 음악이 성악, 피아노, 현악 트리오로 연주되었는데 이번에는 이화 음악팀 외에도 초대 예술가로 테너 Jose Miguel Santelices씨가 동창 이규임 씨와 함께 라보엠의 듀엣을 노래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이화 음악팀의 공연을 들으며 내빈들은 그 어느 때 보다 훌륭한 공연이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앙코르로 "축배의 노래"가 공연되어 모두 건배하고 음악에 박수를 치며 아름다운 예술의 향연을 즐겼다. 총 90여명의 내빈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의 음악회가 끝나고 식사를 진행하였고 식후에는 퀴즈와 경품 뽑기를 하여 선물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식사 후 퀴즈와 경품 뽑기로 준비된 선물을 나누고 환담을 즐긴 후 모두 이화 교가를 제창하며 폐회하였다. 매년 연말에 개최하는 이화 디너 파티는 단순한 친목만이 아니라 음악과 나눔이 함께 하는 자리로 이화 동창들의 한 해를 마감하는 행사이다.



■ TORONTO 지회장 김기방 (73 서양)



2025년 신임 임원회를 시작으로 더욱더 따뜻하고 희망찬 동창회로 성장하기로 결의하고 다양한 한 해 행사를 계획했다. 2월, 5월과 9월에 3번의 햇불회를 개최했다. 이화 출신 목사님들의 훌륭하신 설교와 은혜로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더 성장시키고 이어지는 맛난 식사와 대화는 동창 간에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다. 3월에는 정기총회를 열고 동창회의 여러 안건을 논의하고 식사와 대화와 오락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7, 8월은 걷기동호회 주관으로 매주 토요일 시내 공원에서 걸으며 대화하며 건강을 챙긴다. 9월에는 성영희(95 서양) 동창의 갤러리에서 장학부 주관으로 배움카페가 열려 큐레이터인 김금미(80 영문) 박사의 현대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10월에는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5명이 참가하여 2028년에 열릴 토론토 북지연 총회를 준비하여 견학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다. 11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파티를 '동학숙의 이화' 라는 주제로 풍성하게 치렀다. 12월에는 1년 동안 수고한 임원들의 송년 모임을 끝으로 한 해를 감사히 마무리했다.

지회 소식

■ VANCOUVER 지회장 이은경 (89 기독)

밴쿠버 지회는 2026년 붉은 말띠의 새해를 맞아, 첫 모임을 지난 1월 24일 개최하였다. 만남의 설렘으로 모인 동창 모두를 위해 새해를 여는 '축복의 기도문'으로 시작했다.

밴쿠버지회는 해마다 첫 모임에서, 팔순(八旬)이 되신, 선배님들을 위한 작은 축하 잔치를 한다. 올해는 전은숙(68 생미) 동창과 오유순(69 약학) 동창이 80세를 맞았다. '인생은 80부터', 'Blessings!', '무병장수' 등 다양한 축복의 글귀를 팔시루떡 케이크에 담아 축하드렸다. 특별히 80년을 훌륭하게 살아오셨다는 승리와 존경의 증표로 '왕관'을 씌워드리자, 두 분이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셨다 (*사진참조). 식사를 나누며, 자유롭게 자기소개와 덕담의 시간을 가지며, 팔순잔치의 백미가 된 축하 노래도 이어졌다.

2025년 12월이 지나가던 어느 날, 시인 김영주(63 국문) 동창의 부고가 전해졌다. 김영주 동창은 '국경의 밤'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인(巴人) 김동환 시인의 따님으로 우리 말과 시를 사랑하던 선배는 고국을 떠나 온 이민자의 삶을 담은 진솔한 '시 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분이다. 선후배님과 장례식에 다녀왔다. 오는 길에는 시인께서 유언처럼 남긴, 시 한 편을 선물로 받았다.



■ WASHINGTON DC 지회장 김 원 (83 영문)



워싱턴 DC 지회는 2025년 12월 13일, 버지니아주 하얏트 리젠시 델레스에서 동창과 이화사우 등 7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지회 총회 및 연말 파티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원(83 영문) 동창이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인준됐고, 2025년 10월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를 후원해 주신 모든 동창님들께 감사표지를 대표로 김귀현(56 영문), 박옥영(61 교육), 홍성자(64 영문) 동창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8월에는 Backpack Drive 행사를 통해 동창과 자녀들이 함께 40개의 책가방에 학용품을 정성껏 담았다. 책가방들은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단체 Little Lights를 통해 지역 내 소외된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또한 Ewha Knitting Club은 2025년 한 해 동안 Calvary Women's Services 여성 홀리스 쉼터에 동창들이 직접 뜬 모자 약 100개와 함께 동창회 및 이사회 기부금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2026년 1월 30일에는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NMAA)에서 열린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 전시를 함께 관람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이정실(86 불문) 교수가 한국 미술사의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참가자들에게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03760
TEL : 02-3277-3386, 3387 FAX : 02-393-9141
www.ewhaalum.or.k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TEL : (82-2) 3277-3386, 3387 FAX : (82-2) 393-9141
www.ewhaalum.or.kr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후배 이화 동창들께

안녕하십니까,
19대 총동창회장 이명경입니다.

모교와 총동창회를 향한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후배 이화 동창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동창회는, 이화 140년의 역사를 이끌어 온 진선미의 이화정신, 즉 나눔과 섬김, 봉사의 마음을 항상 되새기며 새 소망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총동창회는, 지난 2001년 시카고의 일부 동창을 중심으로 결성된 소위 '북미주 동창회(북미주 총동창회에서 2009년 북미주 동창회로 명칭 변경)'로 인해 '북미주 지회연합회' 소속 동창 여러분께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총동창회 그리고 이화국제재단 및 모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오랜 기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정통성을 가진 단체로서, 총동창회 회칙에 따라 북미주 지역의 공식 지회연합회로 인정되었으며, 총동창회 동창회보의 '이화동창' 로고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모교 및 총동창회의 이 같은 입장은, 역대 총동창회장과 총장 명의로 북미주 지역 동창들께 전달된 여러 서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각 서면의 간략한 요약 및 해외지회 관련 총동창회 회칙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선후배 이화 동창 여러분,
우리는 이화가 내일을 향해 나아가 수 있도록 화합과 조화 속에서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총동창회는, 북미주의 모든 동창이 한마음으로 이화동창이라는 공동체로서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화가 한국의 '이화'를 넘어 세계의 '이화'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견인차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월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서 반갑게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이 명 경



【첨부-1】 '북미주동창회'와 관련하여 모교 및 총동창회가 표명한 공식 입장 요약

- 2001년 6월 및 10월, 최명숙 총동창회장(제13대), 장상 총장, 윤우정 이사장이 공동으로 북미주 동창들에게 보낸 두 차례의 서면
'북미주지회'가 동창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면서 총동창회, 국제재단 및 대학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시카고 지회의 일부 동창들이 주도하고 있는 '북미주총동창회'의 결성은 이화가 지켜온 화합과 협력의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함.
- 2001년 11월, 최명숙 총동창회장(제13대)이 북미주 지회장 및 회원에게 보낸 서면
동창회칙에 따른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총동창회 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회결성은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소위 '북미주총동창회'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로써 본 동창회와 무관함을 확인한 총동창회 정기임원회의(2001년 11월 20일) 결과를 북미주지회장 및 회원들에게 알림.
- 2004년 8월, 윤순희 총동창회장(제14대)이 북미주 지회장 및 회원에게 보낸 서면
동창회 회칙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북미주총동창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총동창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40년의 역사가 인정되는 '북미주지회연합회'의 활동에 감사를 표함.
- 2007년 8월, 김순영 총동창회장(제15대)이 북미주 동창들에게 보낸 서면
모교와 총동창회가 북미주지역 공식 동창회로 인정하는 것은 '북미주지회연합회'임을 제차 천명하며, '북미주총동창회'가 본연의 '북미주지회연합회'로 합류하여 이화동창이라는 공동체로서 화합하기를 촉구함.
- 2015년 9월, 김영주 총동창회장(제17대)이 북미주 동창들에게 보낸 서면
'북미주지회연합회'와 '북미주동창회'의 이름을 구별할 것을 당부하며, 모교와 총동창회가 북미주 지역의 동창회로 정식 인준한 곳은 '북미주지회연합회' 뿐임을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북미주동창회'가 속히 '북미주지회연합회'에 합류하기를 촉구함.
- 2015년 9월, 최경희 총장이 북미주 동창들에게 보낸 서면
총동창회와 오랫동안 함께 헌신해 온 '북미주지회연합회'를 중심으로 북미주지역 동창들의 역량을 모아 학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함.

【첨부-2】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7장 지회

제23조(설치자격)

- ① 정회원인 30인 이상 되는 지방 및 해외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지회를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
 1. 이회의 회칙 수락
 2. 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의 확립
- ② 조직된 지회는 이회에 등록을 신청한다.

제24조(입회절차)

- ① 전조의 조건을 갖춘 지방 및 해외 동창 조직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지회 창립총회 회의록
 2. 지회 회원 및 임원 명단
 3. 지회 회칙
- ② 지회의 입회 승인은 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지회에 통고한다.
- ③ 이미 조직된 지회에서 분리된 모임은 이 회에 입회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그 지회의 승인을 얻어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지회연합회)

- ① 해외지회는 국가별로 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다. 총동창회는 지회와 연합회를 통할한다.
- ② 지회와 지회연합회 회칙은 총동창회 회칙에 위배될 수 없다. 다만, 위배여부는 총동창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협력)

이회와 지회 및 지회연합회는 모교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연도별 총회 개최 지역

연도	지회명	지회장
1976	Washington DC	김정자(62 가정)
1977	New York	이해경(50 음악)
1978	Chicago	전신애(65 영문)
1979	New York	장한희(53 기독교)
1980	Detroit	김신형(49 가정)
1981	S. California	김성자(61 교육)
1982	Chicago	최순자(66 의과)
1983	New York	조 연(61 약학)
1984	Philadelphia	장창희(62 가정)
1985	Washington DC	한순정(58 미술)
1986	N. California	이명희(62 교육)
1987	New York	이부자(60 사회)
1988	Toronto	여정자(67 기독교)
1989	Chicago	최경혜(60 법학)
1990	S. California	이희성(60 영문)
1991	N. California	최충자(62 사회)
1992	Detroit	김정숙(62 의과)
1993	Houston	임예자 (65 사학)
1994	New York	임병대(60 교심)
1995	Washington DC	오성미(64 영문)
1996	Boston	김경애(70 의학)
1997	Toronto	정인영(68 물리)
1998	Atlanta	김은숙(68 사회)
1999	Chicago	윤미혜(64 사사)
2000	S. California	김대훈(60 화학)
2001	Detroit	차승순(70 기약)
2002	Orlando	하명숙(66 체육)
2003	N. California	강영자(64 기독교)
2004	Houston	김성혜(72 식영)
2005	Cleveland	이선희(70 교심)
2006	Toronto	강선희 (67 교육)
2007	New York	최성남(70 약학)
2008	Seattle	이정형(63 약학)
2009	Denver	이미옥(68 국문)
2010	S. California	오명애(74 장미)
2011	Boston	조수현(76 수학)
2012	Vancouver	강유순(67 약학)
2013	Washington DC	오혜경(72 영문)

연도	지회명	지회장
2014	N. California	제갈숙경(79 기약)
2015	Atlanta	김정희(79 약학)
2016	Houston	김명옥(75 경영)
2017	New York	박영숙(86 경영)
2018	Toronto	박현주(89 물리)
2019	Seattle	신경림(80 장미)
2020	N. Texas	신동진(85 섬예)
2021	Detroit	황수영(89 화학)
2022	S. California	정현숙(87 체육)
2023	Boston	김지영(82 교육)
2024	N. California	이영완(81 정외)
2025	Washington DC	이지은(96 불문)
2026	Atlanta	차희숙(77 체육)

2026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주	지회명	지회장
AK	Alaska	김수연(96 커미)
CA	N. California	박명정(80 자수)
CA	S. California	김성은(88 과교)
CO	Denver	김진희(06 건축)
GA	Atlanta	차희숙(77 체육)
HI	Hawaii	이정란(85 영문)
IL	Illinois	이정화(94 건교)
MA	Boston	권선인(89 수학)
MD	Baltimore	금영진(80 의직)
MI	Detroit	박은하(92 교공)
MN	Minnesota	김정은(90 체육)
MO	St. Louis	최혜영(86 생미)
NV	Las Vegas	이영인 (68 도서)
NY	New York	류은주(91 약학)
OH	Cleveland	김예경(96 사생)
OR	Portland	한나리(92 체육)
PA	Philadelphia	이교연(70 영교)
TX	Houston	이은경(92 사생)
TX	N. Texas	이미리(83 도서)
WA	Seattle	김희정(83 영문)
DC	Washington DC	김 원(83 영문)
Canada	Montreal	김명원(92 수학)
Canada	Ottawa	홍정현(92 불문)
Canada	Toronto	김기방(73 서양)
Canada	Vancouver	이은경(89 기독교)

동창회 장학금 / 기금 소식

2025 모교 이화여대에 지급된 지회별/동창 그룹별 장학금/기타 목적별 기금 현황

지회별 장학금/동창 그룹별 장학금	2025 지급액 (\$)	2025 장학금 수혜자
간호대학 장학금	7,500	김수정(간호대학) 외 2명
남가주 써머스쿨	10,500	Frida Larios(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 외 2명
남가주 지회	15,000	이은수(음악대학) 외 5명
뉴욕 지회	17,500	우진영(인문과학대학) 외 6명
디트로이트 지회	7,500	신서영(인문과학대학) 외 2명
미네소타 지회	2,500	이제린(조형예술대학)
보스톤 지회	7,500	이해인(약학대학) 외 2명
볼티모어 지회	2,500	박시은(사범대학)
북텍사스 지회	2,500	황승비(공과대학)
북가주 지회	7,500	이채현(사범대학) 외 2명
시애틀 지회	2,500	김지원(사범대학)
애틀랜타 지회	7,500	최현서(사회과학대학) 외 2명
알래스카 지회	2,500	박지민(공과대학)
워싱턴 DC 써머스쿨	7,000	Olivia Smith(Georgetown University) 외 1명
워싱턴 DC 지회	7,500	정유현(사회과학대학) 외 2명
클리블랜드 (동북오하이오) 지회	7,500	윤하영(경영대학) 외 2명
토론토 지회	7,500	김수아(사회과학대학) 외 2명
휴스턴 지회	7,500	김지형(신산업융합대학) 외 2명
		Total \$130,000.00

기타 목적별 기금 (기간: 01/01/2025-12/31/2025)	지급액(\$)	기타 목적별 기금 (기간: 01/01/2025-12/31/2025)	지급액(\$)
약학대학 건축 기금	11,000	의과대학 발전 기금	10,000
이화 해외 동창 기금(Ewha West Campus Project)	100,000	의과대학 연구 기금	50,000
Ewha West Campus Project	146,300	간호과학대 건축 기금	113,000
인공지능(AI) 교육 발전 기금	20,000	간호대학 발전 기금	2,000
영문과 발전 기금	8,000	법대 발전기금	20,000
		Total	\$480,300.00

Grand Total \$610,300.00

지역별 로컬 장학금 현황

지회명	장학금 및 후원 내용
남가주 지회	지회 장학금 \$8,000; 비영리 단체 후원금 \$2,000
뉴욕 지회	지회장학금: \$ 12,000
덴버 지회	이화 국제 재단 \$500
디트로이트 지회	동창 유학생(Univ. of Michigan/ Michigan State Univ.) \$3,000; 지역사회 \$1,000; 동창 자녀 \$1,000
보스톤 지회	지회 장학금 \$3,000; 선교비 \$500; 지역사회 불우이웃 돕기 \$300; 이화 국제 재단 \$2,000
시애틀 지회	University of Washington, Korean Studies 장학금 \$1,000; 불우이웃 돕기 \$2,325; First Responders Children's Foundation \$2,325
애틀랜타 지회	지회장학금 \$1,000; 선교부 \$200; 한인회 패밀리센터 \$300; LA산불후원 \$2,000; 이화 국제 재단 \$1,000; 총동창회 \$1,000
워싱턴 DC 지회	지회 장학금 \$2,000; 홀리스 쉼터 \$1,000; 빈민지역 아동 대상 책가방 기부 \$2,000
일리노이 지회	지회 장학금 \$1,000;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후원금 \$500
클리블랜드 지회	Womankind Maternal & Prenatal Care Center \$500; Domestic Violence Center \$500
토론토 지회	지역장학금 \$1,350 선교후원금 \$590
필라델피아 지회	이화 국제 재단 \$1,000 ; GOAHEAD 선교 지원 (인도, 네팔 등지의 빈민학생 옷, 가방, 신발 구입비), 미안마 음악학교 설립비 지원 \$1,000
휴스턴 지회	지회 장학금 \$2,000; Life Tree Ministries (난민지역) \$1,200
볼티모어 지회	이화 국제재단 \$1,000
장학금 및 후원 합계: \$61,090	

2026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일정

10월 29일 (목)	03:00 PM - 10:00 PM	호텔 체크인 및 총회 등록
	06:00 PM - 07:5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지회장 회의
	08:00 PM - 10: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정기 이사회
10월 30일 (금)	07:00 AM - 08:30 AM	아침식사
	10:00 AM - 11:30 AM	오전 만남 "Connect to the Future" 나의 일상을 깨우는 AI 라이프
	02:00 PM - 03:30 PM	오후 만남 "나만의 힐링을 담다" 천연 수제 비누 클래스
	04:10 PM - 05:00 PM	이화 합창 연습
	05:00 PM - 06:00 PM	각 지회 탤런트 쇼 리허설
	06:00 PM - 10:00 PM	총장님과의 만찬 및 각 지회 탤런트 쇼(이화인의 밤)
10월 31일 (토)	07:00 AM - 08:30 AM	아침식사
	08:30 AM - 09:30 AM	총회
	10:00 AM - 11:00 AM	오전 만남 "나를 돌보는 가장 우아한 선택" 라인댄스
	02:00 PM - 03:00 PM	오후 만남 "나의 참 자아 발견" Enneagram
	04:10 PM - 05:00 PM	이화 합창 연습
	06:00 PM - 06:30 PM	리셉션 및 개인사진 촬영
	06:30 PM - 10:00 PM	북미주 지회연합회 대만찬
11월 1일 (일)	07:00 AM - 08:30 AM	아침식사
	08:30 AM - 09:30 AM	예배
	09:30 AM - 10:30 AM	총장님과의 대화
	10:30 AM	작별 인사 및 체크아웃

관광 안내

일일관광	<p style="text-align: center;">DAY 1 10월 30일 (금) 08:00 AM - 04:00 P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비 \$100 (차량 포함, 점심 불포함) • 08:00 AM - 픽업 & 출발 • 10:00 AM - Downtown Helen • 12:00 PM - Helen 출발 • 01:30 PM - Park Village Shopping Center, Duluth • 04:00 PM - Hotel 도착
	<p style="text-align: center;">DAY 2 10월 31일 (토) 09:00 AM - 4:00 P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비 \$100 (차량 포함, 점심 포함) • 09:00 AM - 픽업 & 출발 • 10:00 AM - 스톤 마운틴 • 12:00 PM - 점심식사 • 01:30 PM - 코카콜라 박물관 <li style="text-align: center;">Martin Luther King, Jr. 생가 방문 • 04:00 PM - Hotel 도착
Savannah & St. Augustine 관광	10월26일(월)-10월 28일(수) 2박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비 \$769 - 호텔 2인1실, 차량, 기사, 가이드, 기사 & 가이드 팁, 입장료 포함 • 모든 식사 (첫날, 둘째날 점심 제외), 여행 전날 도착 1박 숙박비 별도 • Savannah, St. Augustine 관광 • 관광문의 안내 - 김경원 770-634-5646 • 예정인원이 40명 이상일 때 여행 가능

* 모든 참가비는 1인 기준이며, 일정이나 가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wha, Grow, Glow Atlanta 2026! 참가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거주지 주소	Street	
	City	State Zip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 지회		졸업학과 졸업연도
동행자 수	본인제외	명 동행자 이름:

행사날짜	행사내용	참가비 (US \$)	인원수	합계
10월 29일 (목)	총회 참가등록*	\$30		
10월 30일 (금)	아침식사	\$30		
	오전 만남: "실생활에 바로 쓰는 AI 실용 세미나"	Free		
	오후 만남: "올가닉 향 비누 만들기"	Free		
	총장님과의 만찬 및 각 지회 탤런트 쇼(이화인의 밤)	\$150		
10월 31일 (토)	아침식사	\$30		
	오전 만남: "즐거운 라인댄스"	Free		
	오후 만남: "나의 참 자아 발견" Enneagram	Free		
	북미주 지회연합회 대만찬	\$150		
11월 1일 (일)	아침식사	\$30		
관광신청	10/30 (금)	매력적인 조지아의 독일마을 Helen, GA 남부 한인 사회의 중심 Park Village Shopping Center, Duluth	\$100 차량포함/점심불포함	
	10/31 (토)	세계 최대 화강암 바위 Stone Mountain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World of Coca-Cola Martin Luther King, Jr. 생가 방문	\$100 차량포함/점심포함	
	10/26(월)~10/28(수) 2박3일	Savannah St. Augustine	\$769 전날 1박 숙박비 별도	
총액**				

* 8월 31일 까지 참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참가 등록비 \$30이 면제됩니다.

** 참가비가 결제되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가비는 반드시 체크로 써서 우편으로 발송해주세요.

참가 신청 마감 9/15/26 조기 등록 마감 8/31/26 (등록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와 Check을 함께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 (Check의 메모란에 반드시 이름, 졸업 연도, 학과, 지회를 기재해 주세요) • Payable to : Ewha • 주소 : Ja Eun Goo, 2043 Fosco Dr, Duluth, GA 30097 • 온라인 등록 : ewhaatlanta.org 또는 오른쪽 QR Code 사용 등록 	
호텔 예약 마감 10/9/26	<p>The Westin Atlanta Perimeter Nor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7 Concourse Parkway NE, Atlanta, GA 30328 • 온라인 예약 : 오른쪽 QR Code 사용 • 전화 예약 : "Ewha Womans University Alumni Event" 요청 (Tel. (888) 627-8407) • 객실 가격 : \$129 + tax/Room (2인 1실 기준) 	
교통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약 40분 거리 (약 24마일) • 공항내 Marta(Gold Line) 승차, Dunwoody Marta Station 하차 → Perimeter Connects Concourse Shuttle 이용 후 호텔 하차 • Uber 또는 Lyft 이용 시 약 \$50~60 	

*참가 문의 : ewhagrowglow@g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애틀랜타에서 2026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모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합치는 역동적인 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애틀랜타 이사회
이사장 이복희(75 섬유예술) 외 이사 34명 일동

이화창립 140주년 되는 뜻깊은 해에 애틀랜타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이며, 주님께서 주신 꿈과 희망을 갖고
의미있는 총회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축하드립니다.



이화여의대 모임
회장 조후자(70 의대) 외 일동

HERITAGE
GA Realtors

여주은 부동산 전문인

Heritage GA
Realtors

Top #1
에이전트



공인 감정사의 눈으로 **정확한 가치**를 찾아드립니다

여주은 (92 독문)

조지아 공인 감정사 자격증 보유

이화여자 대학교 졸업

GA / SC / FL 부동산 LICENSE 소지

한국 대기업(K-Corp) 부동산 프로젝트 파트너

Warehouse & Shopping Center 거래 전문

GA Real Estate Licensed Broker 자격증 소지

GA Real Estate Licensed Instructor 자격증 소지

Georgia Board of Appraiser

Atlanta Realtors Association

Georgia Association of Realtors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Member

직통 678.772.9736

회사 770.622.4723

<https://remine.com/re/juneyeo>
june@gaheritage.com

3761 Venture Dr. STE 250B
Duluth, Ga 30096



이화의 품격, 에벤에서 이어지다

오랜 전통의 이화여자대학교는 수많은 여성 리더와 지성인을 길러낸 대한민국 대표 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의 정신을 품은 동문들은 평생 배움과 품격 있는 삶을 이어갑니다. 현재 에벤 실버타운에는 여러 이화여대 동문들이 함께 생활하며 추억을 나누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성과 품격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선택한 곳, 에벤 실버타운은 삶의 가치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김혜자



이정숙



김혜정



장석란



김봉희



황금자

에벤에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누리세요

골프 커뮤니티 생활

한인타운과 근접한 위치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활력을 주는 일상 스케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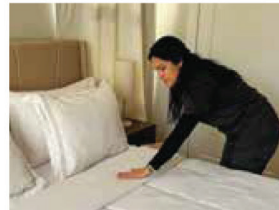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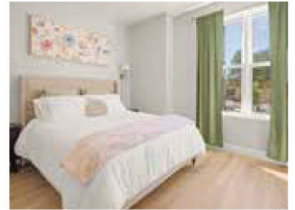
체계적인 복용약 관리

정성이 가득한 건강식

은퇴 후,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장보고, 식사 준비, 집안일까지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셨나요?

노후는 준비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가장 빛나는 지금, 당신의 선택이 안정된 미래로 이어집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불안하거나, 갑작스러운 건강 변화에 대비하고 싶다면 이제는 미리 준비할 때입니다. 에벤은 건강하신 시니어분들부터 추후 케어가 필요한 순간까지, 한 곳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라이프 커뮤니티입니다

SUBSCRIBE

youtube.com/@ebensilvertown

1495 Satellite Blvd NW, Suwanee, GA 30024

678-503-9373 (한국어 상담 환영)

www.ebenst.com



심성술 정신과 전문의

(Dr. Seong Shim, MD, Ph.D., Psychiatrist)

치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치매 등 전신건강 질환
청소년 ADHD

김영례 (79 교육심리)



Seong Shim, M.D., P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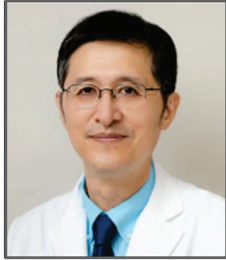
한국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남일리노이 대학 정신약리학 박사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레지던트, 펠로우
케이스웨스턴 의과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재직
시카고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재직
에모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재직
LifeStance Health 정신과 의사

LifeStance Health | 470-482-6508

10090 Melock Bridge Rd. Suite 110. Johns Creek, GA 30097

김진안, 이재영 내과

web site: jkmedi.com



Dr. 김진안, MD



Dr. 이재영, MD



Dr. 장영성, MD

의료진

- ♥ Dr. 김진안, MD ♥ NP 김민정
- ♥ Dr. 이재영, MD ♥ NP 존권
- ♥ Dr. 장영성, MD ♥ NP 애나우

박성민 (90 의학)

진료과목

- 일반진료 및 각종 피검사
- X-RAY
- 골다공증검사
- 심장검사
- 폐검사
- 관절검사
- 뇌졸중검사
- 암표지자검사
- 초음파검사: 갑상선, 경동맥, 복부, 자궁, 방광, 대동맥, 하지정맥
- 자궁암검사
- 예방접종
- DOT exam (운전신체검사)
- 기본 건강검진: 의사 선생님 진료, 소변, 종합혈액검사, 심전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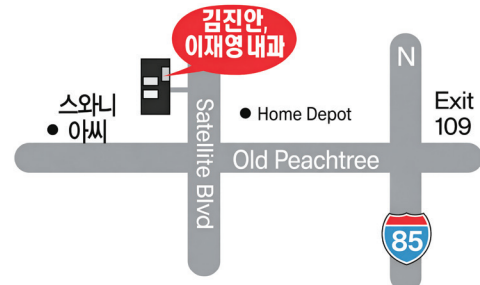


☑ 화상진료

☑ 영주권 신체검사

☑ 학교 school form

☑ 최신 대상포진 예방주사 (Shingrix)



진료
예약

678.417.1255

진료
시간

월 - 금 9:00am - 5:00pm
토요일 9:00am - 1:00pm

1325 Satellite BLVD NW Suite 701 Suwanee, GA 30024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당신의 여행, JC가 함께합니다.

편안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특별한 여행을 설계해드립니다

항공권 예약부터 맞춤형 여행 일정까지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JC 여행사.
새로운 여행의 시작을 경험해보세요.

JC여행사

김영라 (88 사회)

770-451-1236

2730 N Berkeley Lake Rd NW-400, Duluth,
GA 30096

jcatlanta.com



애틀맘 부동산

770-865-8100



*Sharing the journey, honoring the memories.
Your agent for home-begin with ATLMOM.*

당신의 집을 위한 여정과 기억을 함께하는
에이전트 애틀맘

SANG KYUNG LEE

(HANNAH LEE)



이상경 (93 교육심리)



유튜브 애틀맘  YouTube @ATLMOM

애틀맘 이상경  KakaoTalk LSKBCDHSB

770 865 8100 • ATLmom2023@gmail.com



VIRTUAL PROPERTIES REALTY

770 495 5050 Ext 3856 Office

2750 Premiere PKwy. Duluth, GA 30097

匠人精神

1등 은행을 만듭니다

고객을 위한 **장인정신!**

철저한 장인 정신과 직업 윤리를 가지고 1등 은행을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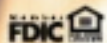
—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

METRO CITY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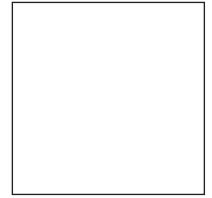
메트로시티은행

www.metrocitybank.com



"Metro City Bank is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MetroCity Bankshares, Inc. (Nasdaq: MCBS)".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Atlanta Chapter
<https://ewhaatlanta.org/>



To: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미주 지역의 이화여자대학교 동창 모임으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북미주 지역연합회는 본교 총동창회에 등록되어 있는 25개 북미주 지회의 연합을 의미하며 매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창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의 지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계속 간직하고 이화인으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북미주 지역연합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화 그린 네트워크 안에서 긴밀히 연결된 이화인의 힘을 느끼고 교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whana.org